

한반도 첫 수도 고창소식

12
2019
제 453호



발행처 고창군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전화 063.560.2327
FAX 063.560.2259 홈페이지 <http://www.gochang.go.kr>

고창군에서 매월 발행하는 군정 소식지로 누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구독을 원하지 않으시면 연락 주세요. (063.560.2327)



2019 모양성 제야의 북소리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새해를 알리는 첫 울림!

2019. 12. 31.(화) 21:00
고창읍성 내 특설무대

Program

| 주요행사 |

축하공연, 군민 인터뷰 영상상영
송년 및 신년사, 타고식, 불꽃쇼 등

| 부대행사 |

소원지 쓰기, 차(茶)나눔 행사
경관조명 포토존 등

주관 • (사)고창모양성보존회 후원 • 고창군 고창군의회

농생명식품산업 수도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농민수당 실현,
농생명을 살리겠다는
고창군정의 마음가짐

고창군과 고창군의회는 전국 최초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전북 최초로 지급된 농민수당(1만155농가, 농가당 28만5000원씩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은 고창 땅에서 토종종자를 지키며 땀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의 마음으로 농생명을 살리는 군정을 펴겠다는 고창군정의 가치이자 마음가짐이었다. 또 토종종자 육성, 지역내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제한 조례도 만들며 '고창에서 나온 것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모두 함께 즐기는 건강한 신맛!
대한민국 식초문화도시 '고창'

농생명식품수도 고창군은 자연과 먹거리에 문화와 전통 가치를 담아 국내 식초 산업을 이끌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세계화를 위한 천년대계를 준비해 나간다. 식초산업은 복분자 등 고품질 원재료의 1차 생산에 머물지 않고 가공, 유통, 판매, 체험을 통해 부가 가치를 높이며 '농생명식품수도 고창'의 미래를 밝혀줄 블루오션이다.



주)LF, 주)GS리테일 고창군과 손잡고
지역농생명 식품산업 활성화

고창군은 LF(구, 엘지패션)와 협업체 선운사 녹차를 한국 토종 명차로 육성한다. 또 녹차밭에는 제품 생산과 체험, 시음을 할 수 있는 힐링 공간도 들어설 예정이다. 전국 수백개의 편의점과 슈퍼마켓 유통망을 갖고 있는 GS리테일과도 업무협약을 맺어 고창군에서 생산된 쌀, 잡곡, 고구마 등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고창멜론 세계최초 온라인 경매
고창땅콩 청와대 추석 선물 선정

최고 품질의 고창멜론으로 온라인 경매(페이스북 라이브)를 시도해 1세트에 210만원에 낙찰됐다. 행운의 주인공은 "깨끗한 곳에서 농부가 정성껏 기른 최고급 멜론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고창땅콩'도 대한민국 농특산품의 대표주자만 선정되는 '청와대 명절선물세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화제를 모았다.

역사문화관광 수도

2019년 한 해 이렇게 보냈습니다.

‘군민 자긍심’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았다

고창군은 지역에서 역대 3번째로 열린 ‘제 56회 전북도민체전’과 ‘전북장애인체육대회’를 단 1건의 사고도 없이 역대 최고의 대회로 치러냈다.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 양 대회 모두 종합 3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체전기간 5만 여명의 선수·임원·관광객이 지역을 찾았으며, 26억6000만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고창군은 ‘스포츠 마케팅팀’을 신설해 폭 넓고 다양한 스포츠 행사와 전지훈련 유치에 매진했다. 그 결과, 전국우수대학 초청 축구대회, 1700여명이 참가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태권도 대회 등 굵직한 전국 대회를 유치했고, ‘금메달 따는 전지훈련의 성지’로 알려지며 음식점과 숙박시설에 젊은이들이 몰려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 고창 무장기포지 사적지정 노력

고창군이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의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토론회' 등을 열고 무장기포의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사적지정 및 활용화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또 내년 역사교과서 편찬과정에 무장기포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앞서 지난 5월11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정부가 주최한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기념식'에서 고창군이 요구해 왔던 동학인 무장포고문 낭독이 성사되기도 했다.



‘품격높은 문화유산의 도시’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보물 지정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高敞 禪雲寺 懺堂庵 石造地藏菩薩坐像)’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31호로 지정됐다. 고창군은 이번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의 보물승격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모두 26점(보물 9점, 사적 6점, 명승 1곳, 천연기념물 7점, 국가민속문화재 2점, 국가무형문화재 1명)으로 늘었다.



‘숭고한 희생정신 기억’ 의향(義鄉) 고창군, 3·1운동·임정수립 100주년 행사

올해 고창군은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열었다. 3·1절과 광복절에는 군 청사 전면에 초대형 태극기를 게양했고, 거리에는 일광 정시해 선생 등 고창군 독립운동가 73명의 이름과 업적 등이 기록된 가로기가 내걸렸다. 특히 고창군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만세운동이 재현됐고, 동리국악당에서 국악공연도 열려 비장했던 당시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함께 살리고 잘사는 상생경제



‘돈이 도는 선순환 경제’ 고창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톡톡

유기상 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고창사랑상품권’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7월1일 고창군은 ‘고창사랑 상품권’ 발매를 시작했다. 농민수당은 물론, 이장단 상여금, 각종 대회 시상금 등이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그동안 전남과 인근 지역에서 생필품을 구입한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고창사랑상품권은 고창관내 1670여개 가맹점에서 불편함 없이 사용가능하다. 5%할인된 금액으로 우체국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고, 카드 수수료 부담도 없어서 군민과 상인들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50억 4600여만 원 판매액을 기록 중이다. 특히 내년 초에는 카드형 고창사랑 상품권도 발매를 준비하고 있다.



상하농원이 할로윈데이를 맞아 고창농특산물 홍보 행사를 열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고창” 고창군과 기업이 손잡으면 ‘대박’난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주관한 ‘농업-기업간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기업’ 9곳에 3곳(상하농원, 국순당고창명주, 하이트진료음료)이나 고창군과 상생협력을 펼쳐 주목받았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CJ프레시웨이’도 고창 쌀을 계약 재배해 지역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가 선정한 ‘전라북도 유망 중소기업’에 고창관내 기업인 (주)삼보죽염, (농)국순당고창명주, (주)리더스 산업이 선정되면서 5년 연속 유망중소기업 배출의 쾌거를 안았다.



로컬잡(JOB)센터, 농촌지역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로컬잡(JOB)센터가 지난 4월 문을 연 뒤, 지역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창군내 신규 취업자수는 물론, 구인건수, 구직인원, 알선 지표 모두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 특히, 잡센터는 구직등록자 536명 중 그간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 77명을 발굴해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했다.



나눔과 봉사로 촘촘한 복지

2019년 한 해 이렇게 보냈습니다.



‘세심한 배려의 경로복지 정책’ 100세 어르신 마을잔치 80세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고창군이 올해 100세 어르신 마을 잔치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역경의 100년 세월을 이겨낸 장수어르신을 지역에서 자랑스럽게 기리고 마을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는 기회가 됐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100세를 하늘이 내려 준 나이라는 큰 의미를 되살려 마을 잔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80세 이상 5300여명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해 주는 ‘경로 이미용비 지원사업’ 역시 한반도 첫수도 고창만의 창의적 복지정책의 첫발을 내딛는 의미있는 지원으로 평가됐다.

미래의 행복을 이끌어갈 ‘여성친화도시 고창’

올해 고창군은 여성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뒀다.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슬로건(미래의 행복을 이끌어갈 여성친화도시 고창)이 정해졌고,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정에선 그간 금녀의 부서로 두터운 유리벽으로 막혀있었던 핵심보직(울력행정, 군정홍보, 지역경제, 원예특작)을 여성이 도맡으면서 유리천장을 과감히 깨뜨렸다.



고창군청 로비, 지역 장애인 일터로 제공

고창군 청사 1층이 커피향 가득한 북카페와 전시공간으로 확 달라졌다. 먼저, 중증장애인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주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고창 최초의 중증장애인 카페가 들어섰다. 군민들이 언제든 편히 머물면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간과 군정소식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졌다. 특히 ‘기부천사’ 코너도 마련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신 분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눔과 봉사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268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월12일부터 12월12일까지 31일간 운영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고창군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요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879억원,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6205억원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조규철 군의장은 “올 한 해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군민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해에도 고창군의 힘찬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제268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지난 11월22일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이 진행됐다. 임정호 의원은 컨벤션센터건립 계획과 향후 고창군 공설·공동 묘역 정비방안, 파크골프장 설치계획을 질문했다. 이경신 의원은 산림저수지 둘레길 조성, 청소년 시설 운영관리, 한빛원전 안전대책, 지역자원 시설세, 운곡댐 저수지 수위 활용방안을 질의했다. 김영호 의원은 공음면 군유오거리(청보리밭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 마을공동 태양광시설 설치계획, 저수지 준설대책 등에 대한 질의를 폈다. 이봉희 의원은 고창읍사무소 신축계획을 질문 했으며, 차남준 의원은 무장읍성 발굴·복원사업, 람사르 운곡습지 관광 활성화 방안, 해안선 주변의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 계획과 고창군 농업인회관 건립 관련 질문을 했다. 조민규 의원은 고창일반산업단지 소송 진행 상황, (주)고창항토배기유통 정상화 방안, 고인돌공원 앞 생태 숲 조성사업, 무보직 6급 직원의 인사운영 문제, 고창군 공무원의 적절한 직렬 배치와 새마을 공원에서 석정온천까지 산책로 개설에 대한 질문을 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29일 열린 7차 본회의에서 이뤄졌다. 특히 군의회는 이번 군정질문과 시책보고에 사회단체와 군민 등 300여명을 초청해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9년 10월 31까지 행정집행 전반에 대해보고 받았다. 꼼꼼한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 81건에 대해 지적 및 개선을 요구했으며, 황토전시체험관 운영에 대해선 현지 확인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인규 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개선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품 생태공원으로 재탄생된 고창자연마당” 제19회 자연환경대상 수상

고창군 자연마당이 11월22일 환경부가 후원하고 (사)한국생태복원협회 주관으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19회 자연환경대상 시상식’에서 대상(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고창자연마당은 오랫동안 불법개간, 묘지 조성으로 훼손돼 생물 서식공간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군과 군민들이 힘을 모아 사유지를 매입하고 묘지를 이장시켰다. 지난 4월 생태공간으로 재탄생한 자연마당은 ▲습지 ▲유아놀이터 ▲숲체험원 ▲야외학습장 ▲탐방로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내년에는 자연환경해설사, 지역환경 교육센터로 지정된 고창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와 연계해 군민, 학생의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 노동저수지 일원에 추진 중인 수상데크와 탐방로가 내년엔 완료될 예정으로 가족·연인들이 가볍게 산책하고,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자연마당의 자연환경 대상 수상은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이 어려움 속에서도 생태환경을 잘 지켜가는 소중한 가치를 잘 보여준 사례다”며 “민선 7기 군정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생태관광 등과 연계해 품격있는 역사문화 관광도시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고창군의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며 따뜻한 겨울 만들어요

공음면 새마을부녀회는 이날 담은 사랑의 김장김치 1000포기를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 등에 전달했다. 공음면 새마을부녀회 이임선 회장은 “소금, 새우젓 등 값비싼 재료들은 아니지만 어느 유명한 요리연구가라도 공음면 사랑의 김치 맛을 흉내낼 순 없을 것이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속정이 배추 속마다 듬뿍듬뿍 배무려져 있기 때문이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처럼 연말연시를 맞아 고창군내 다양한 나눔 사업이 펼쳐지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해리면 자율방범대, 해양쓰레기 수거 구슬땀

고창군 해리면이 11월14일 해리면 자율방범대(대장 김재문) 회원들과 주민 등 약 50여 명이 참여해 동호 해안가에 떠밀려온 초목류와 폐목, 페스티로폼, 각종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약 3톤 가량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재문 해리면 자율방범대장은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가 밀려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정화활동에 참여해보니, 해양쓰레기 수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며 “해리만의 자랑인 동호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주민 참여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무장면 작은목욕탕 새단장

고창군 무장면이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무장면 작은목욕탕 외벽 정면과 우측면에 주민들과 지역 학생 등 30여명이 힘을 모아 벽화를 그렸다. 벽화에는 지역 문화재인 무장읍성과 무장의 농촌 풍경을 정겹게 담아내 큰 호응을 얻었다.

무장면 작은목욕탕은 고령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119 직통전화와 안전비상벨을 설치해 아름다움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고창군 무장면 황한규 면장은 “이번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와 고창군 공무원들이 세종시 현지에서 국가예산 전략회의를 열고 있다.

올해 공모사업 역대 최대 선정 및 국가예산 확보(1230억원)

고창군이 올해 중앙 및 도 단위 각종 공모사업에서 역대 최대인 26건이 선정돼 575억원에 이르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 지역 발전 불씨를 살렸다. (64건의 총사업비 1087억3000만원)

군은 중앙부처와 전북도의 사업선정 방법이 공모형식으로 확대·변경됨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은 물론, 월별 정부공모사업 동향을 분석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재해위험지구(고창/평지/상하 용정) 정비사업(531억원),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176억원), 생활SOC 복합시설인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고창읍사무소+가족센터+다함께돌봄센터)(142억원), 세대공감 글방문화공간(군립도서관+생활문화센터)(128억원),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80억원), 들녘경영체 육성(고구마 가공시설) 지원사업(67억원), 고창읍 성두 새돌마을 사업(38.7억원),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22.5억원) 등 굵직한 SOC사업에 잇달아 선정되며 어려운 지방재정에 숨통을 틔웠다.

고창 기네스 공모전

신청기간 2020. 1. 1(수) - 2. 28(금)

응모자격 고창을 사랑하는 누구나

추천대상 고창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최고·최초·최대·최다 등의 별난 기록 보유자
예) 최다 자격증 보유자/최다 헌혈자/균형감각의 달인 등
※ 인증패 수여 및 소정의 부상지급(고창사랑상품권)

추천서교부 고창군 홈페이지→행정소식→고시·공고란에서
추천(신청)서 다운받아 사용

접수장소 고창군청 군정홍보팀/읍·면 사무소
※ 문의 : 063. 560. 2327



자랑스런 고창만들기 군민운동

고창 氣 살리기, 사(4)기 높이기!

1. 고창 氣 살리기

- 고창 주인의식 심기
- 고창 자랑하며 살기
- 고향사랑 운동하기(향우와 함께)
- 살맛나는 고창 만들기
- 칭찬하고 박수치며 살기

2. 고창 사랑하기

- 고창 알고 사랑하기
- 고창 물건 사기
- 고창 기업키우기
- 고창사람 고용하기
- 고창 업체 이용하기

3. 고창인재 키우기

- 자식농사 잘 짓는 기반 만들기
- 고창사람 먼저 키우기
- 고창사람 먼저 기회주기
- 고창인재 후원하기
- 내고장 학교 가기

4. 함께 나누기

- 나눔과 기부 가치 공유하기
- 자원봉사 생활화 하기
- 이웃 먼저 배려하기
- 사회적 약자 배려하기
- 자리아타 정신 심기



정치후원금 기부하고, 좋은정치로 돌려받으세요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www.give.go.kr

